

# “KIA 투수들 ‘싸움닭’으로 만들겠다”

**KIA 타이거즈**  
**오키나와 캠프를 가다**  
일본 = 김여울 기자 **광주일보**

“기대도 되고 부담도 된다”며 정재훈 투수 코치가 KIA 타이거즈 유니폼을 입은 소감을 밝혔다. KIA는 일본 오키나와 마무리캠프에 앞서 이동 걸 볼펜 코치와 정재훈 투수 코치를 영입하면서 마운드에 변화를 줬다. 두산에서 오랜 시간 활약하며 지도자로서도 역할을 했던 그는 새 팀에서 새 선수들과 호흡을 맞추고 있다. 정 코치는 “분위기가 좋고, 감독님 잘해주시고 비슷한 연령대 코치들도 많아서 적응에 전혀 문제가 없다”며 “KIA는 전국구 팀이다. 팬층도 그렇고, 우승도 제일 많이 한 팀이다. 매년 우승권에 있어야 하고 우승을 생각하는 팀이라 기대도 되고 부담도 되는데 투수 파트 잘 만들어서 내년 우승에 일조하겠다”고 언급했다. KIA는 지난해에 이어 올 시즌에도 외국인 투수들의 부진 속에 5강 탈락의 쓴맛을 봤다. 선발고민이 있었지만 ‘젊은 마운드’는 강점으로 꼽힌다. 이번 캠프에는 긴 시즌을 운영할 때 반드시 필요한 선수들이 참여해 구슬땀을 흘리고 있

**정재훈 투수 코치**  
선수와 코치 서로를 잘 알아야 투수는 마운드서 강한 모습 필요  
훈련 불편해야 경기가 편안해

다. 정 코치가 최우선으로 두는 부분은 ‘대화’다. 선수를 알아야 마운드 지도를 그릴 수 있기 때문이다. 정 코치는 “나도 선수를 알아야 하고, 선수들도 나를 알아야 한다. 처음 선수들에게 이야기한 게 내가 다섯 마디 이야기하면 선수도 다섯 마디를 하라는 것이었다. 쓸데없는 이야기라도 하라고 했다. 그 래야 서로 빨리 알고, 원하는 게 뭔지 알 수 있다. 결국 목표는 하나다. 잘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며 “선수들 잘 되고, 그런 선수가 모이면 팀이 강해지는 것이다”고 말했다. 대화를 바탕으로 ‘어릴 시간’도 갖고 있다. 정 코치는 “지금은 경기를 하는 기간이 아니니까, 내가 어떤 투수인지 보여줘야 한다. 라이브 피칭 등을 통해 자신의 볼, 타자들의 반응 등을 보면서 자신이 좋은 투수라는 자신감을 채워야 한다. 그

반대인 선수에게는 계속 용기를 주면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코치는 ‘시간’과의 지루한 싸움도 두려워하고 있다. 그는 “다음 날 바로 좋아지는 걸 가르쳐 줄 수는 없다. 방향을 제시해 주고 몇 개월 후 1년 후, 3년 후에 다른 선수가 될 것이라는 모티브를 준다. 좋은 것인데 나쁜 것인데 시간이 쌓여서 된 것이다”며 “코치를 보는 눈은 똑같다. 어떤 부분이 당장 안 좋아진 게 아니다. 극단적인 변화도 필요하겠지만 그 역시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 코치는 “경기를 전장으로 비유하면 무기가 오늘따라 안 좋다고 경기 중에 체크하고 영점을 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총을 던져서라도 경기를 이겨야 한다. 훈련은 그걸 조절하는 것이다. 좋아질 것이라는 이해를 시키는 것부터 시작이다”며 “경기할 때 생각이 마운드 2-3m 안에 있는 선수가 있다. 경기하면서 내 공, 밸런스를 찾는데 투수의 생각은 18m 밖 홈베이스 쪽에 있어야 한다. 타자가 어떻게 내 공에 반응하는지, 다음 타자는 어떻게 반응할지를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캐치볼 시작하는 시점부터 지킬 것 지키고

체크할 것 하면서 훈련을 불편하게 해야 한다. 그래야 마운드에서 편하다. 캐치볼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1년에 300-400번 캐치볼을 한다. 1년, 3년, 5년 하면서 버릇이 가지고 있고 자신을 체크할 수 있는 항목 몇 가지 있으면 투수 코치가 필요 없다. 그런 걸 등한시하면 안 좋은 버릇이 쌓인다”고 훈련을 강조했다. 좋은 습관을 이야기한 정 코치는 KIA 투수들을 ‘싸움닭’으로 만들겠다는 각오다. 그는 “다들 착하고 순하다. 마운드에서는 강한 모습이 있어야 한다. 내가 마운드에서 타자들한테 위압감을 못 주는 투수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내가 나오면 타자들이 편하겠다’, ‘두려워하거나 불편해하는 느낌을 못 주겠다’는 생각했다”며 “구위가 좋은 투수가 아니었고, 타자가 뒤로 물러서게 한 외일드한 폼이 아니어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다. 타자들을 불편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KIA 팬들이 열성적이다. 힘이 된다. 관중이 많으면 선수들도 자기가 모르는 힘이 나오게 된다. 그런 상황을 즐긴 줄 알아야 좋은 투수가 된다”며 “6, 7, 8번 선발 준비를 해놔야 한다. 여기서 준비할 수 있는 대상에 들어갈 선수들을 파악하고 준비하겠다. 선수들 많이 알고, 배우면서 내년 시즌 좋은 결과 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재훈 코치

/ wool@kwangju.co.kr

## KIA 박찬호 최고 유격수 ... KBO 초대 수비상

LG 오지환과 공동 수상  
포수 양의지·1루수 박병호  
2루수 김혜성·3루수 허경민

KIA 타이거즈의 박찬호가 2023 KBO 수비상 유격수 부문 초대 수상자가 됐다. KBO가 19일 내야수 부문과 포수 수비상 수상자를 발표했다. 올 시즌 처음 제정된 KBO 수비상은 정규시즌에서 가장 뛰어난 수비능력을 발휘한 포지션별 선수에게 시상하는 상으로 감독, 코치 9명, 단장 등 구단당 11명씩 총 110명의 투표를 통한 투표 점수 75%와 수비 기록 점수 25%를 합산해 수상자가 결정됐다. KIA 박찬호는 투표 점수 66.67점, 수비 점수 20.83을 기록하면서 LG 오지환과 동률을 이뤄 공동 수상자로 이름을 올렸다. 오지환은 투표 점수 75점, 수비 점수 12.5점 등 87.5점을 받았다. 이어 SSG의 박성현이 79.17점으로 3위에 이름을 올렸다. 포수 부문에서는 올 시즌 친정으로 복귀한 두산 양의지가 수상자가 됐다. 투표인단으로부터 34표를 받아 투표 점수 75점을 획득한 양의지는 포수 무관 도루를 제외한 도루 저지율·블로킹과 공식기록 등 포수 수비 기록 점수에서 17.41점을 받는 등 총점 92.41점으로 포수 부문 1위가 됐다. LG 박동원(80.8점)과 KIA 김태균(70.54점)이 그 뒤를 이었다. 1루에서는 KT 박병호가 주인공이 됐다. 투표에서 56표를 얻어 75점을 획득한 박병호는 수비 기록 점수에서 25점을 더해 100점을 받아 1위가 됐다. LG 오스틴이 68.75점으로 2위, 두산 양석환이 46.88점을 받아 3위가 됐다. 키움 김혜성은 투표 점수 75점(64표)과 수비 기록 점수 20점 등 총점 95점으로 2루수 부문 수상자가 됐다. SSG 김성현이 91.25점으로 2위, KIA 김선빈이 73.75점으로 3위에 이름을 올렸다. 3루에서는 두산 허경민이 투표 점수 75점(31표)과 수비 기록 점수 8.33점 등 총점 83.33점을 받아 SSG 최정(81.94점)과 한화 노시환(72.22점)을 따돌리고 수상자가 됐다. 수비상 수상자들은 27일 오후 2시 서울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진행되는 KBO 시상식에서 트로피와 함께 200만원의 상금을 받는다.



박찬호

더해져서 올 시즌에는 시야가 더 넓어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너무 잘하려고 욕심내면 더 안 좋은 결과가 나오기도 한다. 이제 기술적으로 발전할 때는 지난 것 같다. 유지와 어떻게 생각을 가져가느냐가 중요한 것 같다. 또 집중력이 관건이 될 것이니까 집중력 있는 수비를 하겠다”며 “피치클락의 경우 수비수에게는 입장에서 좋은 것 같다. 집중

력을 가지고 경기를 할 수 있다는 점은 긍정적인 것 같다”고 덧붙였다. 부상으로 아쉽게 시즌을 마무리했던 박찬호는 수상의 기쁨 속 새 시즌을 위한 준비에 나섰다. 박찬호는 “이제 다시 훈련을 시작했다. 겨울에 몸 잘 만들고, 내년 시즌 건강하게 좋은 모습 보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 광주 AI 페퍼스 안방 승리 무산

IBK기업은행에 1-3

AI 페퍼스의 안방 두 번째 승리가 무산됐다. 광주 프로야구배구단 페퍼저축은행 AI페퍼스가 19일 광주페퍼스타디움(염주종합체육관)에서 열린 2023-2024 V리그 홈 경기에서 IBK기업은행에 세트 점수 1-3(18-25 25-20 22-25 19-25)으로 패했다. 앞선 15일 한국도로공사와의 원정 경기에서도 1-3으로 패했던 페퍼스는 이번에도 승점을 더하지 못했다. 1세트 시작부터 접전이 펼쳐졌다. 페퍼스가 야스민과 박정아의 속공으로 좋은 출발을 했지만 실점이 이어지면서 중반부터 흔들렸다. 기업은행이 아베크롬비의 킥오프으로 20점에 먼저 도달했다. 이어 아베크롬비의 내리꽂는 공을 이고은이 디그 시도했지만 어렵게 실패하면서 분위기를 내렸다. 18-24 세트포인트 상황, 이한비의 공을 여자 프로배구 사상 첫 외국인 세터인 폰폰이 막아내며 1세트 승리는 기업은행에 넘어갔다. 2세트에서 페퍼스가 반전의 무대를 선보였다. 3연속 블로킹으로 역전에 성공한 페퍼스는 그 기세를 이어 나갔다. 야스민의 공에도 불이 붙었다. 덩달아 기업은행의 마음은 급해졌다. 기업은행

김호철 감독은 선수들에게 ‘천천히’를 강조하며 침착한 플레이를 당부했다. 야스민의 목적인 공이 아베크롬비의 디그 실패를 이끌어냈고, 2세트의 마지막은 박정아가 장식하며 페퍼스가 25-20으로 승리를 가져왔다. 팽팽한 분위기에서 시작된 3세트. 페퍼스 서재원이 강력한 스파이크로 문을 열었다. 3세트에선 이한비의 활약도 돋보였다. 이한비의 공격 이후 비디오 판정 결과 터치아웃으로 확인되며 페퍼스가 득점을 냈다. 이한비는 연이어 날아오르며 공을 던져 점수를 더했다. 하지만 3세트 중반까지 우위를 점하던 페퍼스가 기업은행 아베크롬비의 백어택과 김하경의 서브 득점에 서서히 따라잡혔다. 19-19 동점 상황에서 기업은행이 페퍼스를 제치면서 3세트의 승리를 가져갔다. 페퍼스는 4세트에서도 점수를 가져오는데 실패하면서 19-25를 기록, 기업은행에 승리를 위한 마지막 세트를 넘겼다. 뒷심 싸움에서 밀리며 패배를 기록한 페퍼스 조트린지 감독은 “경기 끝까지 집중력을 유지 못 한 게 패배의 원인이 됐다”고 언급했다. 한편 주말을 맞아 2355명의 배구팬이 페퍼스타디움을 찾으면서 뜨거운 응원 열기를 보여줬다. /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

## 우즈, 발목 수술 뒤 7개월 만에 대회 출전

히어로 월드챌린지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사진)가 발목 수술 뒤 7개월 만에 대회에 출전한다. 미국프로골프(PGA) 투어에서 통산 82승을 거둔 우즈는 19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히어로 월드챌린지 대회의 일정과 함께 자신의 출전 소식을 알렸다. 바하마의 올버니에서 현지시간 11월 30일부터 12월 3일까지 열리는 이 대회는 우즈가 세계골프랭킹 상위권 자들을 초청해 매년 개최해 왔다.

2021년 자동차 사고로 크게 다쳤던 우즈는 이외에도 크고 작은 부상에 시달렸다. 지난 4월 메이저대회인 마스터스에서는 3라운드에서 기권한 뒤 발목 수술까지 받았다. 이후 재활에 매달렸던 우즈는 최근 아들 찰리가 출전한 대회에서 아들의 캐디를 해주면서 필드 복귀가 임박했음을 알렸다. /연합뉴스



## 신진서 8강 진출 ... 삼성화재배 2연패 순항

한국랭킹 1위 신진서 9단이 삼성화재배 2연패를 향해 순항했다. “디펜딩 챔피언”인 신진서는 19일 경기도 고양시 삼성화재 글로벌 캠퍼스에서 열린 2023 삼성화재배 월드바둑 마스터스 16강전 첫째 날 경기에서 대만의 쉬하오흥 9단에게 208수 만에 백 불계승했다. 신진서는 지난해 끝난 항저우 아시아안게임(AG) 바둑 개인전 준결승에서 쉬하오흥에게 예상치 못한 패배를 당해 동메달에 그쳤다. 쉬하오흥은 결승에서도 중국의 커제 9단까지 꺾고 금메달을 획득하는 쾌거를 이룩했다.

50여일 만에 다시 쉬하오흥을 만난 신진서는 초반부터 실리에서 앞선 뒤 상변의 흑 진영에 침투한 뒤 타가에 성공해 승부를 결정지었다. 신진서는 쉬하오흥과 통산 상대 전적에서도 4승 1패로 앞섰다. 그러나 이날 함께 16강전에 나선 다른 한국 선수들은 모두 중국 기사에게 패해 탈락했다. 20일 같은 장소에서 열리는 16강전 둘째 날 4경기는 모두 한중 대결이 펼쳐진다. 김명훈 vs 황원승 9단, 김누리 4단 vs 렘샤오 9단, 박정환 9단 vs 탄샤오 9단, 한웅규 9단 vs 세얼하오 9단의 대결로 8강 진출자를 가린다. /연합뉴스